

2016년 12월 7일, 남원읍 태흥3리 오봉남씨 댁, 김선희 조사.
오봉남(남, 1922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[조사자] 소곰빳이 귀신대랜 허는 거파?

[제보자] 나도 태흥이리가 놀당 이월 초순인데 비 축축 오라가난 집에 오젠 오논디 누웠
당 널랑 가렌 해도 그냥 집이 오구정 행 집이 오논디, 그디 오니까 막 사람들 노
래들 부르는 소리, 어린아이 우는 소리. 나는 또 이게 뭇이고 헤영 7만히 들었
어. 알아지는 사람 노래도 닳고. 모르는 사람 노래, 애기 우는 소리 막 나곡. 예
에 그냥 와 분다 행 넘어왔는데 넘어왕 다음날은 엇치낙 영영 행 다니당 이상한
거, 어, 자꾸 그런 소리 나와, 헤여.

[조사자] 그게 헛게 소리인가마썸?

[제보자] 그것7라 헛소리영 헤여. 그 외론 난 아이 봐난.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랜도 헤
도. 다리 영 벌연 그 알로 넘어가민 사흘 내에 죽엇젠 헤여.

- 핵심어 : 소곰빳, 노래 부르는 소리, 아이 우는 소리, 헛게 소리, 헛소리